

# 제7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2023. 4. 5.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3년 4월 5일(수) 14:00~17:00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김 정 각 위 원

송 창 영 위 원

박 종 성 위 원

이 동 욱 위 원

## 4. 회의경과

###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3년도 제7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함.

#### 1) 회의록 보고

- ☐ 2023년도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 2) 안건 심의

- ☐ 의결안건 제52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폐지령안』, 의결안건 제53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감독규정 폐지고시안』, 의결안건 제54호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무인가지침 폐지고시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하고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각각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55호 『(주)○○○○○○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제가 2020년 8월에 주식을 매각한 것은 회사 정보를 이용하여 매각한 것이 절대 아님. 이 주식을 2017년도에 제가 스톡옵션을 부여받아서 2019년도에 회사가 상장하면서 행사한 주식으로 그 당시 세금절감을 하기 위하여 과세특례신청을 하여 1년간 보호예수기간이 있었음. 기존에 주가가 2019년도에서 2020년도 넘어가면서 많이 올랐었는데, 좋은 조건에 주식을 매도할 기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보호예수기간 때문에 팔지를 못하고 있었고 그 보호예수기간이 끝나고 바로 매각하였음. 그 당시에 주식을 매각한 이유는 2020년도 4월에 제 아내가 셋째를 출산하고 육아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어서 소득이 줄어든 상태였고 생활비가 증가하고 주택자금대출금도 있었고 차량 할부금도 매월 상환하고 있었음. 그래서 생활비가 좀 부담이 되어 보호예수가 끝나면 매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주식임. 그래서 주식 매각하고 나서 주택자금과 차량 할부금 대출금도 전액 상환하였음. 저는 기존에 주식을 해 보지도 않았고 계속 회사 생활만 하고 세금도 잘 납부하고 법도 잘 지키면서 살아왔음. 다니던 회사가 상장하면서 주식이라는 것을 알았고 상장하게 되면 미공개정보에 대한 교육도 하여 그때 교육 받을 때 회사 직원은 회사 주식을 매입하거나 매각 후에는 6개월 이내에 거래를

하면 안되고, 또 회사 정보는 타인이나 외부에 알려주면 안 된다고 배웠음. 저는 스톡옵션을 보호예수기간 1년 동안 보유하고 있었고 보호예수 끝나면 주식을 팔 생각으로 있었는데, 그때 회사가 적자여서 매각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나도 못했음. 저는 보호예수가 끝나서 매각을 한 것이고 그 당시 회사 실적이 안 좋았을 뿐임. 제가 □□□□□□□□□□이어서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실적을 알고 있는 것인데 제가 그것을 이용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 억울함.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셔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 (위원) 2020년 8월10일 주식을 매각할 당시에 회사의 실적이 안 좋아지는구나, 하는 것은 알고 있는 상태였는지?

▶ (진술인) 저는 □□□□□□□□□□으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 (위원) 쭉 회사가 영업이익을 실현하다가 영업적자로 전환이 되면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 가능한 상황 아닌지?

▶ (진술인) 그때 당시에 저희가 반기보고서 공시하기 전 6월 초에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나간 적이 있었음. 상반기 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은 그 보고서 나가면서 기사가 나서 실적이 안 좋다는 것은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이었음. 그래서 저는 공시가 되어도 그렇게 주가에 영향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2020년도에 코로나

19가 터지고, 그때 저희가 반기공시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코로나19 재확산 이슈가 발생했음. 그래서 글로벌 경기부진이 있었고, 미·중 갈등 고조 이런 기사가 많이 나갔고 전체적으로 저희 (주)○○○○○○도 주식이 많이 빠졌지만 경쟁사인 ◆◆◆◆◆나 ●●●● 주식도 저희와 비슷하게 많이 빠졌음.

○ (위원) 보통 실적 공시 시점에 주가변화가 예상되는 것들은 일반적인 경우인데, 이와 같이 영업손실을 낸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될 것 같은데 어떠한지?

▶ (진술인) 저는 그런 것을 전혀 몰랐음. 회사가 적자이기 때문에 팔면 안 된다는 것도 전혀 몰랐음. 그냥 대출금 이자 이런 것도 부담되고 하니까 보호예수 기간이 종료하여 판 것임.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질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음. 주식도 제가 12,000주 있었는데 10,000주만 팔고 2,000주는 남겨 놓았음.

○ (위원) 12,000주 보유한 것 중에 왜 10,000주만 매도했는지?

▶ (진술인) 그 당시에 그냥 크게 생각 안 했고 대출금 상환하고 차량할부금 상환하고 세금 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부만 남겨놓고 10,000주만 팔았음.

○ (위원) 매도한 날짜는 예수기간이 끝나자마자인지?

▶ (진술인) 금요일에 팔수가 있는 것이었는데 월요일에 팔았음.

○ (위원) 공시 날짜는 따로 알고 있었는지?

▶ (진술인) 저희가 해외 자회사들이 많아서 결산시기가 좀 빠듯해서 결산이 빨리 되면 공시를 빨리 하려고 하는데 보통은 거의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감.

○ (위원) 반기에는 공시일을 알았는지? 8월14일에 공시가 됐는데 그 날짜를 알았는지?

▶ (진술인) 8월14일 정도에 공시해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었음.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이 회사가 2020년 3월초에 감사보고서 나오면서 2019년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30% 이상 급감했다는 공시를 냈는데 그것이 주가가 떨어진 주요요인(major)으로 보이는데 어떠한지?

- (보고자) 2020년 1분기는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종목이 급락 하던 상태였음.

○ (위원) 공교롭게 코로나19와 겹쳐서 주가는 그렇다고 해도 정보의 중요도를 보면 30% 이상 급감했기 때문에 공시를 낸 것이고 자료를 보니까 1분기(first quarter) 영업이익이 나기는 했는데 굉장히 조금 낮음. 전년도와 비교하면 훨씬 급감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2분기에 얼마 안 되는 흑자도 없

어지고 적자로 전환한 것인데, 일련의 그 패턴을 보면 2분기에 적자가 난 것이 굉장히 갑작스러운 정보인지 아니면 일종의 패턴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영업이익은 이미 30% 이상 급감했고 1분기에도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흑자였고, 그다음에 2분기에 적자로 돌아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분이 이용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정보가, 실제로 정보력의 실체가 있는 것인지도 약간 의문이 듭. 그리고 스톡옵션 행사가 가능하자마자 했다는 것이 좀 설득력도 있음. 물론 자료를 보면 상환한 금액만큼만 매도하고 일부는 남겨뒀다고 했는데 이분 설명은 부인이 일을 못 하니까 생활비가 추가로 필요했다, 그리고 만기상환이 아닌 조기상환을 한 것은 이자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유인도 당연히 있는 것 아닌지?

- (보고자) 우선, 실적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2018년, 2019년도에 300억 원, 200억 원 이상씩 났기 때문에 1분기에 이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실적이 많이 악화된 것을 예측할 수는 있음. 다만, 1분기에 주가가 하락했던 것은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의해서 급락을 했다가 이 종목 역시 2분기에 들어서서는 시작할 때부터 주가가 다시 회복을 했음. 그래서 이 당시에는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부분은 벌써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음. 2분기 실적이 65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향후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주가 측면에서는 그렇게 보임. 그리고 지금 불가피하게 매도를 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정보를 이용해서 매도한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도를 해서 대출금을 상환하고 이런



필요는 있지만 이 대출 자체가 2%대의 아주 낮은 금리였고, 이 당시 상황에서 향후 금리가 어떻게 변동할지도 모르는데 이것부터 가장 최우선적으로 매도를 했어야 되느냐, 금리적인 측면에서 설득력이 약간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됨. 그리고 1억 원 이상을 그 당시 저금리 예금으로 보유하기 위해서 더 많은 수량을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됨.

- (위원) 8월14일에 공시된 적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마어마한 정보의 영향력(impact)이 있는 사건으로는 잘 안 보여서 드린 질문이었음. 이해했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보고안건 제11호 『(주)○○○○○○○○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등 긴급조치 결과 보고』, 보고안건 제12호 『(주)○○○○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등 긴급조치 결과 보고』, 보고안건 제13호 『(주)○○○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긴급조치 결과 보고』를 일괄상정하여 서면보고로 갈음함

- 각각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접수함

- 의결안건 제56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안건 제57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의결안건 제58호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하고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각각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59호 『(주)디에이테크놀러지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첫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본인은 각자 대표이사로서 재무제표에 서명(sign)했다는 포괄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겠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 첫째, 본인은 대주주가 별도로 임명한 경영진의 책임과 권한을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존재했던 상황으로 본 건은 그들의 주도로 진행된 사건임. 둘째, 실질적으로 본인의 업무영역은 회사가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영역의 원활한 유지와 확장에 있으며, 본 위반 관련 건은 전적으로 대주주가 별도로 임명한 경영진이 주도해서 의사결정을 했던 내용임.

- ▶ (진술인) 본인은 각자 대표이사라는 포괄적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2018년도에 제가 회사로부터 수령한 급여 총액이 한 7,000만 원을 조금 넘는 상황에서 지금 부과되어 있는 과징금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함. 두 번째는 본 위반 관련사항을 담당임원에게 대표이사로서 지시한 적이 없음.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에 책임을 져야 된다면 적어도 제가 수령한 급여수준을 감안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 (진술인) 저는 감사보고서에 담당임원으로서 단순히 서명(sign)을 했다는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된 것을 변론하기 위해 출석했음. 당시 제 역할이 실질적으로 책임을 갖고 한 역할이 아니고 現대표이사가 당시에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관리(control)했음. 또한 과징금을 부담하기에는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것도 없기 때문에 과징금을 면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며, 부득이하게 부과하겠다고 하면 최소한으로 감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림.
- (위원) 회사는 법무법인의 의견서도 받고 회계자문(PA)의 의견도 받았고 모두 조건부대가 회계처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였는데 왜 수용하게 된 것인지?
- ▶ (진술인) 감사인, 회계자문(PA)와 저희 실무담당자들이 협의했을 때 조건부대가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서 그렇게 간 것임.

- (위원) 진술인 세 분의 의견은 주식 평가의 적정성 이슈(issue)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지만 그 처리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 내지는 책임이 작다고 말씀하시는 사항인지?

▶ (진술인) 맞음. 책임이 작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임.

- (위원) 주도적인 역할은 당시 부사장이었고 지금 대표이사인 자가 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당시 부사장이 보수를 안 받고 근무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지?

▶ (진술인) 맞음. 당시 부사장이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것이 해소되는 2018년말까지는 급여처리를 안 하는 것으로 하였음.

▷ 첫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마지막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금융감독원에서 감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지만, 쟁점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 또 다른 회계처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주장임. 회사에서 2018년에 주식을 취득하고 3월에 손실보상계약을 했는데, 손실보상계약이면 그다음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후속 기재사항이고 재무제표에 반영이 안 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본 건의 경우 재구매약정계약이 포함되어 2018년 재무제표 숫자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 측은 조건부대가 회계처리를 한 것이고 이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관련규정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바 합리적일 수도 있다는 의견임.

- (위원) 회사가 외부 다른 회계법인에서 회계자문을 받고 법무법인의 의견도 받아보고 회계기준원에도 물어보는데 이와 같은 절차를 왜 취하게 된 것인지?

▶ (진술인) 회계처리가 어느 쪽으로 맞는지 감사인으로서 다 요청을 했음.

- (위원) 회사가 제시한 숫자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 회사 쪽에서 이런 절차를 취해서 감사인과의 간극을 줄이려는 노력을 했던 것인지?

▶ (진술인) 맞음. 저도 처음 보는 회계처리였기 때문에 자문을 할 수밖에 없었음.

- (위원) 그러면 오히려 처음 보는 회계처리이기 때문에 기준서 제1036호를 적용하는 것이 감사인 입장에서는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더 타당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굳이 조건부대가로 회계처리 하신 이유가 있는지?

▶ (진술인) 만약 재구매약정이 없었고 그냥 손실보상계약이라고 했으면 고민할 필요도 없었는데, 재구매약정도 있어서 고민이 되었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오류 회계처리가 나온 것 같음.

▷ 마지막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조건부대가 회계처리라는 방안을 과연 회계자문인이 반대한 것이 맞는지, 그다음 조건부대가 회계처리 제시를 누가 먼저 했는지, 이 두 개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자) PA입장은 처음에 조건부대가 부분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반대의견을 하다가 최종 결론적으로는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음. 또한 회계처리 제시의 경우 손실보증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손상에 대한 이슈(issue)가 별로 없겠구나 했는데 감사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상 이슈(issue)로 보기 보다는 갑자기 조건부대가라는 식으로 새로운 해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위원) 외부감사인이 전문가적 의구심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2018년 '중과실'의 주된 이유가 어떤 악의가 있다거나 이렇게 보이지는 않음.
- (보고자) 회사 입장에서 자산손상을 적게 하려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감사인이 도와줘서 손상을 적게 한 것으로 된 부분이 있어서 감사인 입장도 '중과실'로 보고 회사도 '중과실'로 판단한 부분이 있음.
- (위원장) 실질적인 위반 관련 주도자를 감안하여 당해 회사

에 대한 조치안을 가중해서 '중과실 II단계'로 하고 당시 부사장에 대해서는 임원해임 권고하는 이 기본안을 기초로 해서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감사인에 대해서는 회사가 제시한 것을 회계기준원 등에 물어보는 절차를 고려했을때 최종적으로 잘못 판단해서 그렇기는 한데,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노력한 부분은 참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

\* 만장일치로 보류를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16시 12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 ☐ 의결안건 제60호 『(주)OOOO의 연결재무제표 및 분·반기보고서 등에 대한 심사·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 의결안건 제61호 『OOOO회계법인의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 혐의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감사인감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

- ☐ 의결안건 제62호 『(주)평택동방아이포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을 상정하고 한국공인 회계사회 심사감리본부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 의결안건 제63호 『(주)OOO, (주)OOOOOO의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실시안』을 상정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본부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3년도 제7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7시 00분 폐회)